

169개 공정 700m 라인...캐스퍼, 140초에 한대씩 출하

전기차 캐스퍼 EV 생산 박차...광주 GGM 생산 공장 가보니

직원 80~90% 열정 가득 20~30대...“세계서 가장 젊은 자동차 공장”
로봇이 조립 배터리 장착 눈길...마지막 검수 과정 베테랑 직원 투입

13일 오전 10시 40분께 찾은 광주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조립동. 공장 내부는 옛날 얼굴의 직원들이 각각의 업무 파트에서 차량 생산에 여념이 없었다. 입구에는 약 3년 전 공장 가동이 시작되면서 임직원들이 수기로 작성한 '상생선언문'도 여전히 붙어있었다. 선언문에는 '상생하자', '희망찬 미래', '우리가 원하는 일터'라는 글들이 가득했다. 선선한 내부 온도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용하는 탓에 일부 직원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이날 공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모두 197명. 언뜻 보기에도 이들 중 80~90%가 20~30대 청년들이었다. 젊은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묻어났다. 공장 안내를 담당할 김석봉 생산본부장은 "GGM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자동차 공장"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내연기관 캐스퍼만 생산해왔던 GGM은 지난 7월 경형 전기차 라인인 캐스퍼 EV 생산이 시작되면서 더욱 분주해졌다. 캐스퍼 EV는 도장부터 시작해 총 169개 공정을 거쳐야 완성이 된다. 컨베이어 벨트 길이만 700m에 달했다. GGM은 이날까지 내연기관과 전기차량이 절반씩 생산이 됐었지만, 오전 10시를 기해 조립 벨트에는 전기 차량만 투입되는 중이었다.

GGM에서는 140초에 한 대씩 캐스퍼 EV가 생산되고 있었다. 하루 기준 234대. GGM에서 캐스퍼 한 대가 생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14시간으로 도장이 10시간으로 가장 길고, 조립에는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

이날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차체와 배터리가 결합되는 공정으로, 아래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 기차 화재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 GGM은 지난해 전기차 설비 확충을 위해 총 429억원을 투자했는데, 이중 배터리 공급 및 장착 설비에만 34억원을 들었다. 캐스퍼 EV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320kg으로 기계가 들어올려 로봇팔이 결합하는 구조다. 기계가 배터리를 들어올리면 로봇이 측면에 12개 하단부에 6개의 나사를 박아 넣었다.

캐스퍼 EV에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NCM 배터리가 탑재된다. 캐스퍼 개발 과정에서 2년간 30만km를 주행하는 등 가혹 조건에서 성능을 점검하며 안전성까지 확보했다는 게 GGM의 설명이다.

조립동 내 마지막 공정은 검수 단계로, 직원들이 직접 육안으로 정상 작동이나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베테랑'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여럿 보였다. GGM은 올 8월부터 기아 광주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5명을 채용해 최종 품질 점검 업무를 맡고 있다. 40년 가까운 경력을 가진 이들은 후배적인 GGM 직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캐스퍼 EV 생산의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곧 시장에 출시되는 캐스퍼 EV 품질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베테랑들의 손을 거쳐 'ok' 사인을 받은 차량들은 차고지로 이동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3일 캐스퍼 EV의 생산라인을 공개했다. GGM은 이날부터 8월 한 달간 전기차를 주력 생산해 하루 234대를 출하한다. 사진은 캐스퍼 EV 조립 공정라인에 차량들이 조립되고 있는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라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캐스퍼 EV 생산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캐스퍼 EV는 이날부터 렌터카 회사 등 기업 소비자에게 인도가 시작했다. 캐스퍼 EV를 계약하면 3개월 정도 뒤에 받아볼만큼 시장의 관심은 확실하다.

캐스퍼 EV는 유럽 및 일본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오는 9월 23일부터 현지 사정에 맞는 우측 운전석 차량도 생산할 계획이다.

윤용현 GGM 대표이사는 "캐스퍼 EV는 동급 대비 최대 주행가능 거리(315km)로 압도적이다"며

"유럽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현재 연간 생산량 5만3000대 수준에서, 최대 생산능력인 10만대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신보-남도장터 업무협약 농특산물 로컬기업 육성 지원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과 전남농수축산물 종합 온라인 쇼핑몰인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13일 로컬기업 육성 지원 및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남도장터 입점업체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프로그램 지원, 농·특산물 생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로확대 협력, 지역 사회 공헌 및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재)남도장터는 이번 협약으로 남도장터 쇼핑몰에 입점한 2000여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남신보보증재단의 특별보증 상품 및 보증수수료 지원에 관해 협의하는 등 도내 농어민·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농수축산물 판로를 더욱 확대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남도장터 김경호 대표이사는 "양 기관



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남도장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경영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모범적인 상생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신보 이강근 이사장은 "이

번 협약을 통해 도내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우수 로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더위 속 전력 총수요 102GW...사상 최대치 찍었다

최대 시간대 태양광 비중 17.5%
첨단산업 발전 전기사용 급증 전망

무더위 속에서 지난 12일 오후 총수요 기준 최대 전력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3시 전력시장 안팎 수요를 합친 총수요는 역대 최대인 102.327GW(기가와트)로 기준 최대인 작년 8월 7일(100.571GW)의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추산됐다.

총수요량 공식 집계되는 전력시장 내 수요에 태양광이 대부분인 한전 직접구매계약(PPA),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 발전 등 전력시장 밖 수요까지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전력시장 외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 년 전부터 국내에서 실제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을 가능하려면 시장 내 수요뿐만 아니라 시장 외부의 수요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누적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4.3GW(2022년 기준)에 달하는데 이 중 약 3분의 1만 전력시장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약 3분의 2가 전력시장 외부에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외부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출력 동향을 기상 조건 등 변수를 활용해 추산한 뒤 다시 시장 수요와 더해 총수요 추계치를 산출해 관리하고 있다.

전날 총수요가 최대에 달한 시점에 태양광 발전

출력은 17.924GW로 전체 전력 공급의 17.5%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총수요 역대 최대치 경신에는 지속되는 무더위의 영향이 컸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전날 서울의 최고 기온은 34.1도까지 올랐다. 간밤까지 서울에서는 23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냉방과 전기차 충전 등 일상생활용에서부터 반도체 제조 등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국내 전기 사용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987년에만 해도 국내 최대전력은 10GW에 불과했다. 2007년 7월 최대전력은 약 58GW로 다섯배 이상으로 늘었고, 다시 16년 만인 작년에는 두배 수준인 100GW로 증가했다.

한국의 전력 총수요는 작년 8월 7일 사상 처음으로 100GW 선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고령소비자 건강식품·이동통신 피해상담 많아

소비자연맹 분석...해외여행 관련 상담 1년 새 4배로 급증

한국소비자연맹이 13일 "고령층 인구 증가와 맞물려 최근 60대 이상 소비자의 불만·피해 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2022~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년 새 8.1%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 소비자 상담은 7만4991건에서 7만6180건으로 1.6% 늘었다.

고령자 상담 건수가 전체 소비자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3%에서 15.8%로 상승했다. 6건 중 1건 비율이다.

지난해 기준 고령자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건강식품이었고 이동전화·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유사 투자자문, 치과, 해외여행, 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식품은 무료 사은품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본 제품을 함께 발송해 구매대금을 물

리는 사례와 섭취 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동전화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계약 또는 약관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현금 제고를 미끼로 통신사 또는 상위 요금제로의 변경을 권유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또 치과에서는 병원 휴·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됐음에도 선납한 치료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소비자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고령층 상담을 초래한 판매 방법은 TV홈쇼핑(48.8%)과 전화 권유 판매(27.8%)가 전체 70% 이상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현대차·기아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 제공

전기차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속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13일부터 전국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전기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무상 점검해주는 프로그램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승용과 소형 상용 전기차 모든 차종이다. 검사는 차량의 절연저항과 전압편차, 냉각시스템, 연결 케이블-커넥터 손상 여부, 하체 충격-손상 여부, 고장 코드 발생 유무 등 9개 항목에서 이뤄진다.

서비스 희망자는 각 사 고객센터를 통해 평일·토요일 중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예약한 뒤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면 된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이용자는 전국 22개 지역 하이테크센터와 1234개 블루핸즈에서, 기아 이용자는 전국 18개 지역 서비스센터와 757개 오토큐에서 점검받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객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5만원권 환수율 절반 아래로 시중금리가 내리면서 5만원권 환수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화량 13개월 연속 증가...예·적금 자금 유입

6월 통화 전월보다 23조원 ↑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에 정기 예·적금으로 시중 자금이 흘러들면서 올해 6월 통화량이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37조6000만원으로 5월보다 23조 5000억원(0.6%) 늘었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째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미니마켓 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MMF가 한 달 사

이 각 11조4000억원, 9조2000억원, 5조1000억원 불었다. 반대로 요구불예금, 기타 통화성 상품에서는 각 4조원, 2조8000억원이 빠져나갔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고점 인식에 따른 수요 확대와 은행의 자금 유치 노력으로 정기 예·적금이 증가했다"며 "수익증권은 채권·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늘었고, MMF는 사회보장기금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1.50 (+3.20)
↓ 코스닥	764.86 (-7.86)
↓ 금리(국고채 3년)	2.918 (-0.028)
↓ 환율(USD)	1370.80 (-1.20)